

[엠스쿨]사무엘상 3장(8-15장)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상 3장부터 7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아이였던 사무엘이 장성하여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역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장면을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은 사무엘상 8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텐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장 -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

시간이 지나 사무엘상 8장에서는 사무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이 늙으매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상 8장 1절 말씀

[사무엘이 늙으매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이 표현은 사무엘도 이제 역사의 무대로 퇴장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요엘’인데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는 뜻이고, 다른 아들은 ‘아비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입니다. 사무엘은 아들들에게 이름의 뜻대로 살기 원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두 아들들에게 사사의 직무를 맡겨지만 그 이름의 뜻대로는 살지 못했습니다.

8장 3절 말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뇌물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금지될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죄입니다.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 판결인데 뇌물에 마음이 쏠려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을 본받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마치

사무엘상 1장에 나왔던 엘리와 그의 아들인 홉니와 비느하스처럼 말이죠. 이것을 빌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찾아가 따지며 말합니다. 사무엘 당신도 늙고 아들들도

당신을 따르지 않으니 이제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에는 다른 이유가 숨어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도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길

원했습니다. 주변 나라 중 블레셋이 왕을 세워 강력한 나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한 것이죠. 주변 나라에 있는 왕 제도가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이는 거의 반역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갖고 있던 사무엘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내가

늙었다고 백성들이 나를 버리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왕을 세우는 일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는데요.

8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버린 줄 알았는데 자신을

버린게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는 건가요? 바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은 누구를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호세아 13장을 한 번 볼까요?

호세아 13장 10절 11절

[10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11 내가 분노하므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하므로 폐하였노라]

이것을 '허용적 형벌'이라 말합니다. 허용하기는 했는데 옳아서 허용한 것이 아니라 형벌을 내리는 차원에서 허용했다는 것이죠.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신다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어딴을까요?

하나님께서서는 왕을 허용하시며 사무엘을 통하여 왕의 제도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8장 11절 말씀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라는 말은 아들들을 붙잡아 간다는 말입니다. 강제로 징집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왕정 제도가 좋은 줄만 알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거예요. 이래도 왕이 있으면 좋겠느냐?면서 왕정제도의 나쁜 점을 하나씩 설명해줍니다. 그 첫번째가 아들들을 강제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잡혀가서 어떤일을 하는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게한다 말합니다. 여기서 ‘그의 병거’는 왕의 개인적인 수레를 뜻하는 것으로 왕의 수레와 말 앞에 배치되어 왕을 호위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왕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백성들로부터 아들들을 빼앗고 수종드는 자로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왕은 사사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사사는 자신을 위하여 백성들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은 모든 백성을 자신의 신하와 종으로 만들 수 있을뿐 아니라 그들의 목숨까지도 휘두르는 권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의 밭을 갈게 하고 딸들을 데려가 향료 만드는 자로 삼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향료 만드는 자’는 성적 노리개를 의미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재산을 거두어 간다 말합니다. 이어서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8장 18절 말씀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들의 요구로 왕을 세워주지만 자신들의 요구를 철회해달라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려합니다. 부모는 말하죠. 뜨거우니깐 만지지 말라고.. 그래도 아이는 손을 대보고 화상을 입으며 뜨겁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미리 부모 말을 들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정신을 차리게 되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용적 형벌을 내리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을 요구합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나라가 왜 괴롭히는지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고 왕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세우도록 합니다.

<9장-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열두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이왕이면 규모가 큰 지파에서 왕으로 세운다면 더 탁월한 인물이 뽑힐 것 같은데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뽑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작은 지파를 선택하셨을까요? 만약 큰 지파를 선택하셨다면 열두 지파 사이에 정치적으로 힘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유엔사무총장 같은 자리는 미국과 같이 강대국이 맡지 않고 한국과 같이 이집트, 페루, 가나 등 작은 나라들이 대표직을 맡습니다.

왕으로 뽑힌 사울의 이름은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이며,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가 컸습니다. 그리고 외모가 준수하다고 표현하는데, 이 말은 ‘꽃미남’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났다’는 말입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 사울이 왕으로 제격인 것이죠.

이러한 사울의 집안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울의 집에는 나귀를 여러 마리 키울만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암나귀 여러 마리가 집을 나간 것이었습니다. 이를 찾기 위해 사울은 사환 하나를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일단 암나귀가 있을 법한 목초지 중심으로 찾아다니지만 사흘 동안 헤메고 다닙니다. 너무지친 나머지 사울은 아버지가 걱정하시니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때 사울이 있었던 곳은 솜이라는 곳인데요. 이 곳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솜에 라마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이며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온 나라를 순회하며 다니면서 주로 머물던 곳이 라마였습니다. 이때 사환은 이렇게 말합니다.

9장6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암나귀를 찾게 해줄지 모르니 찾아가서 물어보자는 것이죠. 사울은 사환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로 향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찾아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날에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집안에 나귀가 탈출하고, 사울과 사환이 나귀를 찾으러 간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전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장 16절 말씀

[내일 이맘 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기름을 붓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 헬라식 표현으로는 ‘그리스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가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사울이 도착하자마자 사무엘은 산당으로 올려 보냅니다. 여기서 산당은 무당이 점치는 곳이 아니라 당시 성막이 무너져 있기에 임시로 예배드리던 장소였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산당에 딸려 있는 방에서 식사를 하곤 했는데요, 예배 때 드려진 제물을 제사장들이 초대한 손님들과 함께 먹는 장소였습니다. 이런 산당이 산 위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산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대접합니다. 어떻게 대접하는가? 30명의 지도자들을 초대하고 제일 상석에 사울을 앉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요리를 사울에게 주죠. 사실 사무엘의 입장과 위치에서는 사울을 이렇게 대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마디도 하나님 앞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자신의 지도력을 대신해서 한 청년이 왕이 되고 그를 섬깁니다. 사무엘이 겸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10장 -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다>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을 맞추며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삼으셨음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통하여 장차오실 메시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온 나라에 존경 받았던 지도자 사무엘의 아름다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요.

여기서 잠깐 기름부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기름붓는 행위는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자가 기름을 붓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할 때 ‘기름을 붓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울이 기름부음을 받은 것은 비록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사울의 마음대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기름부음의 두번째 의미는 과거의 삶으로부터 단절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삶에 대해 끊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기름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부음이죠. 우리도 또한 과거의 삶을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기름부음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사울이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세 가지 일로 확신하게 합니다. 첫째는 돌아가는 길에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날텐데, 그 사람들이 암나귀를 찾았는데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전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라헬의 묘실입니다.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였습니다. 라헬을 통하여 두 아들을 낳는데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낳을 때 가슴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본인과 아이, 둘 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라헬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아이를 낳고 죽죠. 그렇게 어렵사리 얻은 아들이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베냐민 지파는 큰 은총을 입은 지파였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나와 왕으로 세워진 것이죠.

두번째 확신을 주는 일은 사무엘상 1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뵈오려고 뽕엘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진 자라]

여기서 뽕엘은 야곱이 꿈속에서 사닥다리 환상을보고 하나님을 만나 축복의 약속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원래 지명은 루스였는데,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집’이란 의미의 ‘뽕엘’로 바뀌었습니다. 이 뽕엘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희생제물을 드리러 가는 예배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사울에게 떡 두덩이를 준다고 말합니다. 왜 줄까요? 이 떡은 보통 떡이 아니라 진설병을 이야기 합니다. 예배 할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떡을 말하죠. 진설병은 제사장과 왕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확신을 주는 일은 사무엘상 10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 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학자들은 5절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무리’를 사무엘이 세운 선지자 학교 학생들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때까지도 선지자라는 말을 안쓰고 선견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질서와 통치를 위해서 자기 집 근처에 선지자 학교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학생들과 사울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울도 예언하게 되죠.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신비한 영적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너도 새 사람이 되리라”

이 말은 기름부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옛 삶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간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 섬겨야 할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새 사람이 되라는 말은 사울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힘으로 나라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섬기고 통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확신의 일에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한가지를 더 당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길갈로 가서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동안 기다리라 하십니다. 7은 완전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을 기다리라는 말이죠. 그런데 기다리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빨리 빠리를 강조하는 나라에서는 더더욱 힘이 들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시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하려는 모습이 제 속에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신앙의 제일 중요한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을 또 다시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배우셨듯이 미스바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떠올리게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길 촉구했었습니다. 다시 그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는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기 위하여 각 지파별로 천명씩 앞으로 나오게 하여 제비를 뽑죠. 이에 사울이 뽑히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11장-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은 사울>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제 사울은 무엇을 해야하나요? 왕궁에서 나라를 돌봐야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왕을 뽑기는 했으나 왕정제도가 잘 잡히지 않은 때였기에 무엇을 해야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왕으로 뽑힌 후에 집으로 돌아가

소를 몰고 있었습니다. 이 때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의 길르앗 야베스에 진을 칩니다. 사실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역사적인 뿌리가 같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있었는데 서로 재산이 많아지다보니 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롯은 소동과 고모라 땅을 택하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불로 심판하십니다. 이에 롯과 가족들은 피난 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피난 길에 오르면서 살아난 사람이 롯과 두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딸이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둘하고 아버지만 남았구나! 이러다 집안 혈통이 끊어지게 생겼으니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대를 이어가자”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들은 서로 큰 민족을 이루죠. 이 암몬의 후손이 길르앗 야베스 족을 위협한 것입니다. 그 암몬 사람의 이름은 나하스인데요. 어원을 살펴보면 뱀이란 뜻입니다. 뱀은 보통 하나님을 대적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나하스가 위험하니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굴욕적인 제안을 합니다. ‘우리과 언약을 맺으면 우리가 너희를 잘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사람 나하스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른눈을 다 뽑아야 언약하겠다고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할 수없이 7일만 기다려 달라하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알리고,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암몬사람 나하스가 허락하죠. 왜냐하면 나하스는 그럴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야베스 사람들은 이 소식을 이스라엘 전역에 알립니다. 그 중 발에서 소를 몰고 가는 사울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참 초라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사울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두 마리 소를 잡아다가 각을 뜨고 12지파에 보내면서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여 사울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온 숫자를 세어보니 무려 이스라엘 자손 삼십만명, 유다 사람 삼만명이었습니다. 합해서 33만명이었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울은 이들과 함께 새벽에 틈을 타 암몬을 쳐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길갈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첫번째로 진친 곳입니다. 수레바퀴라는 뜻인데요,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한다는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매일 하늘에서 내려왔던 만나가 그친 곳이기도 하죠. 그렇기에 길갈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도록 되어있던 분기점이었습니다. 그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립니다. 사실 사울이 미스바에서 제비를 뽑아 왕으로 세워졌을 때만해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사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많았었죠. 그런데 암몬족속을 물리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받고 정식으로 대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울과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였죠. 그렇지만 사무엘은 웃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켠에 근심이 가득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섬겨야 할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이라는 왕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가리워지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이죠.

<12장 -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

사무엘상 12장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자 자신이 사사직을 어떻게 수행해 왔었는지 이야기하며 공식적으로 사울에게 지도권을 넘깁니다. 그리고 자신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면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죠. 사무엘 자신이 사사직을 수행하면서 백성들을 억압하거나 빼앗은 것이 없음을 알립니다. 이것은 자신이 깨끗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무 흠도 없는데 왕을 구했다는 것은 잘못된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죠. 두 번째는 왕을 구한 후에 벌어지는 모든 결과에 대해 백성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가만히 서 있으라 말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으라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운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맺게 되는지 확인해 줍니다.

12장 17절 말씀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와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17절 말씀에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묻습니다. 밀 베는 시기는 이스라엘 계절상 건조기입니다. 절대로 비가 오지 않는 계절입니다. 만약 밀을 베는 때에 비가온다는 것은 일년 농사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밀베는 때인데도 우레와 비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실 때 이러한 자연현상을 통해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로 분노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자신들이 죽지 않도록 기도부탁을 하고 자신들이 왕을 구하는 악을 저질렀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왕도 뽑았고 기름도 부었고 온 백성들이 인정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셔서 버리지 않으시겠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자기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도 버리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 말하죠. 사무엘은 이렇게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사사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힘썼던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두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주님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또는 다른 무엇을 왕으로 세워 나가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당장 내 눈에 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붙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무엘을 통해 깨닫게 되는 두 번째는, 백성들을 마음다해 사랑했던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맡겨진 양 떼들을 사랑하고, 쓸쓸히 퇴장하는 은퇴식에 끝까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겠다 선언하는 모습이 정말 저희 목회에서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맡겨주신 양들이 있습니다. 한 번 곰곰히 생각해 보시고 그들을 위해 나는 얼마나 마음아파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들이 모여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로 커져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3장-사울왕의 큰 실수와 여호와께서 구원하심>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은 공식적으로 왕이 되자마자 큰 시련을 겪으며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 테스트는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암몬과 모압과 블레셋은 썰레야 썰수 없는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국가체제체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은 왕을 중심으로 사사를 통해 다스려지는 나라였기에 국가 시스템이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왕정제도가 실시되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조직합니다. 체계적으로 군사를 모집하고 어느 때든지 싸울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그렇게 모인 군사가 3천명이었습니다. 이를 둘로 나눠서 천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주고 나머지 이천명은 사울이 지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 가장 현실적인 목적은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이 되자 신임을 얻기 위하여 아들 요나단으로 하여금 블레셋에 기습 공격을 하였습니다. 사실 굉장히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블레셋에 비해 병력도 적었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처럼 묶여 있었던 상황이라 함부로 공격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블레셋은 안그래도 전쟁할 명분을 찾고 있었는데 이 때다 싶었죠. 블레셋은 병거를 끌고오는 자가 삼만, 말을 타고오는 자가 육천, 군사는 모래알과 같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울의 군대는 삼천명 밖에

안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둘로 나뉘어져 있었죠.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황의 절박함을 깨닫고 숨으며 뜹니다. 암몬과 싸우던 용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암몬과 싸울 때는 당대하더니 블레셋과 싸울 때는 이리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그것은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여호와와 신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거예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여호와와 신이 임하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안하시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이 때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13장 8절에서 9절 말씀

[8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9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은 지금 세가지 문제 앞에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약속한 날짜 안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은 겁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은혜를 구하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이죠. 사무엘상 10장해보면 칠일동안 기다리라 말하죠. 그런데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군대도 몇 명 남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 옆에 있던 백성들이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하는거예요. 사울의 등에서는 진땀이 나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블레셋이 코앞에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위를 바라봐야하는데 좌우를 두리번 거리다가 인생의 방향을 놓치게 되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울은 마음이 급한 나머지 안되겠다 싶어서 재물을 가져오고 자신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마치자 사무엘이 오게되요. 왜 사무엘은 제사를 마치고 왔을까요? 마치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틈을 보고 나타난 것처럼 예배가 끝나자 들어옵니다. 사실 사울의 행동에 이해가 되긴 합니다. 싸우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하는데 사무엘은 안오지, 급하지, 그래서 사울이 제사를 드린거예요. 그런데 이는 엄연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왕이라도 어떤 이유에서라도 자신이 드려서는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사울을 찔찔맞고 냉정하게 대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인사도 받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어! 지금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라며 분노를 합니다. 사울은 억울해 하며 사울이 직면했던 상황을 이야기 합니다. “백성은 흩어지지, 당신은 안오지, 블레셋 사람들은 코 앞에 진치고 있지 이러한 상황에서 부득이 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은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해서 실수한 게 아니라 마음이 높아졌던 것입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무엇을 해보려 했던 것이죠. 이러할 때 일수록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어겼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고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13장 14절 말씀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14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촛대가 다윗의 집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야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구하여’라는 말입니다. 사울 왕은 누가 구했나요? 백성들이 구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는 누가 구했나요? 하나님께서 구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길갈에서 떠나버립니다. 사울은 남은 군사를 세어보니 육백명 가량 되었습니다. 사울과 군사들은 베냐민 계바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므마스에 대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기껏해야 날이 무딘 괄이나 삼 같은 종류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칼이나 창은 오직 사울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죠. 블레셋은 철기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으로 있으면서도 무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기를 만들어 반역을 일으킬까봐 블레셋이 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블레셋은 병거만 삼만에다가 마병이 육천, 그리고 무기가 철기에다가 날카로웠습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다 흩어지고 육백명만 남은데다가 무기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무더 있는 농기구들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이긴다 해도 이상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과연 이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14장- 요나단의 실수, 사울의 하나님 없는 신앙이 드러남>

14장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하는데요,. 요나단은 무기를 든 소년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적진으로 가자고 합니다. 이는 요나단의 용맹함이나 담대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적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합니다. 그 표징이 무엇인가? 먼저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일텐데, 만약 자신들에게 오라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자신들에게 넘겼다는 뜻으로 표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한 표징되로 되었고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은 만나는 블레셋 사람을 죽였는데 이십명 가량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블레셋에게 퍼지면서 블레셋 사람뿐만 아니라 땅에도 큰 떨림이 있게 됩니다. 이 큰 떨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사용하여 떨림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한편 사울 군대의 파수꾼들이 블레셋을 보니 이리저리 흩어지는 거예요. 사울은 무엇때문에 그런가? 혹시 우리 군사중에서 블레셋 땅으로 간건 아닐까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합니다. 우리 한글성경에는 ‘하나님의 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에봇’을 뜻합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 때 쓰는 도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기 보다는 신앙적인 형식을 더 강화해 나갔습니다. 에봇을 가져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 하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립니다. 전쟁을 감당해야 할 병사들에게 뜯금없이 금식하라 명령한 것이죠. 금식을 어기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저주를 받을꺼라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도자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이 평정심인데 사울은 이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사울이 전쟁 중에 금식을 선언해버리니깐 아무것도 먹지 못한채 힘겨운 상태로 있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이러한 상태에서 블레셋을 치게 되고 그들의 물건을 탈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하셨는데 사울의 군사들이 너무나 피곤하고 허기진 나머지 양과 소와 송아지들에게 달려들어 피째 잡아먹습니다. 사울의 극단적인 선택이 군사들을 극단적으로 몰고 간것이이죠. 사울은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에 급히 큰 돌을 가져와 하나님을 위하여 처음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동안 사울에게는 참된 예배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진심이 빠진 종교 행위만 계속 강화해서 자기의 종교로 만들었던 것이죠. 이것이 백성들을 피곤에 몰아놓고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하나님께 여쭙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계속 칠 것인지 아닌지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 이유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 중에 죄가 있어서 그럴 것인데, 그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밝히고 죽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 요나단일지라도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제비를 뽑는데 누가 뽑혔을까요?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하고 군사들과 떨어져 있던 사이에 벌집의 꿀을 먹었던 것이죠. 사울은 자신이 했던 말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실수를 통하여 사울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사울의 하나님 없는 신앙을 들춰내신 것이죠.

이제 요나단은 꿈쩍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요나단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큰 구원이 있었으니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했다면서 요나단의 죽음을 백성들이 가로 막은 것이죠. 사울의 극단적인 명령과 사울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아들인 요나단을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사울은 백성들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하여 추락해 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 세운 왕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이 구하는 것은 마치 손 안에서 빠져가는 물 같습니다. 손에 잡힌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15장 -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

사울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강조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너는 여호와와 음성을 청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마음이 변합니다. 어깨에 힘이들어가고 태도가 변하게 되죠. 왕이 되니깐 귀를 닫고 안들으려 합니다. 이에 다시 한번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제 그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아말렉을 치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말합니다. 이는 숨이 붙어 있는 것을 다 멸하는 진멸법이었습니다. 이를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호수가 헤렘을 명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진멸법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명령하셨던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군사를 모집합니다. 이스라엘에서 20만명, 유다 족속에서 1만명, 총 21만명의 군사를 모읍니다. 엄청난 숫자가 모인 것이죠. 이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장 11절 말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속성상 후회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몇 군데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말은 이 말을 듣는 이로 하여금 설득하기 위한 표현인데요. 예를 들면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너무 속썩이고 힘들게 하면 ‘내가 너를 괜히 낳았나보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모의 진심인가요? 아닙니다. 그 말의 뜻은 ‘제발 부모 말좀 들으라는 것’이죠. 부모의 안타까움이 이러한 표현으로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만큼 사울의 죄가 크다는 것이겠죠. 과연 사울은 어떠한 실수를 했을까요?

사울은 진!멸!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찮고 가치없는 것은 멸했지만 아말렉의 아각왕과 좋아보이는 양과 소 같은 것들을 살려주어 가져왔기 때문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사무엘도 이 말을 듣고 어찌나 놀랐던지 온 밤을 세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다음날이 되어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갑니다. 이러한 상황에 사울은 자신이 전쟁에서 이긴 것에 대해 자랑스러웠는지 스스로 자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마치 자신이 스스로 노력하여 이긴 것처럼 행동한 것이었죠.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자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사울을 꾸짖습니다. 그러면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들리는 것은 무엇이나는 것이죠. 사무엘의 지적에 사울은 무리가 끌고 왔다고 변명합니다. 여기서 무리란 백성들을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한 것이죠. 또한 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남겨둔 것이라 변명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값진 물건보다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왜 그러지 않았냐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직설적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사울의 불순종의 죄가 왕의 자리를 빼앗길 만큼 큰 죄인가요? 그리고 도대체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무엇이기에, 왕의 자리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을까요?

아말렉은 아곱의 형이었지만 팔족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치고 가르치실 때마다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가로막고 대적한 족속이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시켜 진멸하라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했으나 결국 자신이 좋아보이는 것들을 남겨둠으로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형식상으로는 승리했지만 내용으로는 실패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싸움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 너무 좋아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이예요. 그래서 남겨둡니다. 그런데 차츰 지나고 나니 이것이 나의 삶을 조여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귀를 달은 사울처럼 실수하여 버림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다음주에는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기 전 배울 말씀을 미리 읽어오시는 것 잊지 마시구요. 그러면 다음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